

한 송이 두 메꽃으로 피어나소서

-양 토마스 형제 49제 추모의 시간에

김 영 자 글라라

눈이 내립니다

형제의 다정한 목소리를 끄어안고
소리 없이 내리는 눈송이는
봄이 오기 전에 뿌리시는
하느님의 봄 씨앗입니다

흙에 내리는 작은 씨앗 속에서
지금 우리는
형제의 환한 웃음을 만나고 있습니다
손을 꼭 붙잡고 나누던
뜨거운 가슴을 느끼고 있습니다
긴 겨울 밤 모곡에서 떨치시던
참제자 마을
그 희망의 조감도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물은 머금었습니다
바람이 찾아 왔습니다
땅 기운 솟아오르고
싹을 틔웁니다

모곡 깊은 골짜기에 깨끗하게 오시어
햇살 감싸 안고 씨앗이 되시니
형제여, 새봄이 되면 피어나소서
우리 모두 두 메꽃으로 송이송이 피리니
그대 사랑하는 모곡에서
거친 구름 걷어내고 조금 먼저
한 송이 두 메꽃으로 하느님 껴안고 활짝
피어나소서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르 6, 50)

故 양명신(토마스 아퀴나스)

- 1950. 1. 28.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출생
- 1969. 2. 중등고 졸업(62회)
- 1973. 2.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 1976. 6. ROTC 통신 장교 제대
- 1976. 9. 대한전선 입사
- 1977. 7. 영세 및 결혼
- 1981. 3. 새한전자 근무
- 1988-1992 구로1동 본당 기획분과장
- 2000. 3. INTEC KOREA 회사 설립
- 2002. 중산본당 사목회 부회장
- 2006. 10. '참제자마을' 추진 위원장
- 2010. 12. 8. 선종

주님,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다른 그였던 나’ 인 양 토마스 벗님을 떠나 보내며....

구 요비(읍) 신부님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하여 따랐던 형제요 벗인 양 명신(토마스 아퀴나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는 영결미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12 월 8 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대축일에 이 분은 떠나 가셨습니다. 흰 함박눈이 이 분이 가시는 앞길에 펄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12 월 10 일 프라도 설립 150 주년 기념일에, 우리는 이 영결미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양 토마스 형제의 평생 반려자로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시고 지난 5 년여의 혹독한 투병생활 동안 지극 정성으로 양 형제를 돌보시고, 의연하게 생을 완성하시도록 동반해 오신 박 화옥(글라라) 자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자매님께서 이 가혹한 5 년의 어둔 밤 동안 지고지순한 부부사랑을 보여주시고 완성해 주심에, 우리는 감읍합니다. 성서가 말하는 거룩하고 현숙하고 지혜로운 귀부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음에,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인력(人力)으로 어쩔 수 없는 형제와의 이별을 문득 문득 예감하며, 저는 근래에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던 친구의 죽음에 대해 가지고 계셨던 감정의 표현을, 자주 떠올려 보곤 하였습니다. 고백록 4 장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다른 그였던 내가, 그 이는 죽어도 살아있다는 것이 더욱 이상하였습니다. 누군지 제 벗을 들어 제 영혼의 반쪽이라 한 말은 옳사옵나니. 나도 내 영혼, 그의 영혼을 두 몸 안에 있는 하나로 여겼습니다.”

성인에 따르면 그 ‘친구’는,

- 1) 다른 그였던 나(illic alter eram) : ‘너는 나에게 또 다른 나이다(Mihi es Alter ego)’입니다.
- 2) 자기 영혼의 반쪽(dimidium animae suae) : 또 다른 나의 영혼입니다.
- 3) 두 몸 안에 있는 하나(una anima in duobus corporibus) : 두 몸 안에 있는 한 영혼입니다.

너무나도 이상적인 내용 같습디만, 지난 번 참제자 모임의 대담피정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우정’을 다루며 많이 묵상한 예수님의 말씀인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 (요한 15 장) 하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불가능한 인간관계 만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친구는 또 다른 나’라는 통찰은, 제가 지난 25 년간 양 토마스 형제와 맺어온 교우(交友) 관계에도 많은 빛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영혼의 갈릴래아,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향 ‘구로 1 동 성당’에서 양 형제와 만나고 살아 온 지금까지를 돌이켜 봅니다. 제가 사제로서, 주임신부로서 꿈꾸고 펼치고 싶었던 복음적인 사목 계획을, 저는 능력이 없어서 추진할 수 없었지만, 양 형제님은 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자신의 일처럼 여기시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구로동 본당 공동체의 기획분과장으로서, 또 현재 진행 중인 ‘참제자 마을’ 추진위원장으로, 양 형제님이 보여주시는 그 탁월한 기획력, 추진력, 폭넓은 안목과 통찰력은, 저와 우리 모두의 머리오, 오른 팔과 같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지 저와 우리들은, 이 분의 인격과 인품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저는 양 형제님의 인격과 인품 안에서, 현대 세계 안에서 교회가 바라는 복음적인 평신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 1) 형제님은 한 가정의 충실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로서 성가정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두 따님 인애와 인숙을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시며, 반듯하게 신앙의 딸로서 키우셨습니다. 권위나 명령으로서가 아니라, 자녀들의 입장과 원하는 바를 늘 존중하고, 그 실현을 이루도록 격려하고, 당신이 가진 것을 다 베풀어 주신 자상한 아빠이셨습니다.
- 2) 양 형제님은 탁월한 경제인, 사업가의 탤런트와 마음을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큰 대기업에서 안정된 직장 생활을 원하지 않으시고,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경영 마인드와 운영으로 불철주야 뛰고 일하신 분, 바로 우리나라 산업화 시대의 주역이자 전형적인 일꾼, 전문 기업인이셨습니다. 저는 이 분과 대화할 때마다 한 경제인, 경영인으로서 지니고 계신 높은 긍지와 자부심, 사명감, 사회적인 책임감에 감탄한 적이 많습니다. 양 형제님은,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자주 따로 놀기 쉬운 우리들, 특히 신앙적 가치관과 직장-기업 관행이 유리되기 쉬운 한국 경제의 한계 속에서도, 가톨릭 양심과 교회의 가르침이 뿌리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진흙탕 물을 정화시키며 아름다운 연꽃으로 피어나듯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위해 헌신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직장 동료, 부하 직원들이 형제님의 표양에 이끌려 세례를 받으며, 이 분을 대부로 모셨는지 모릅니다.
- 3) 양 형제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본당 공동체와 형제들의 친교, 봉사, 선교의 정신, 즉 평신도의 예언직, 왕직, 사제직을 위해 기쁘게 활동하셨습니다. 그 바쁜 사회생활 중에서도 늘 기쁘고 보람 있게 교회를 위해 시간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성가 416번은 양 형제님이 제일 즐겨 부르던 노래입니다.

“종기도 좋을시고 아기자기 한지고

형제들이 오손도손 한 데 모여 사는 것.” (시편 133, 27)

우리는 이 형제 안에서 제가 바라고 원하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이는 이 분의 선(善)하신 인간성 안에 뿌려진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성되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5년의 투병생활 중에서도 양 형제님은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고자 하는 ‘참제자 모임’을 주도하셨습니다. ‘참제자 마을’의 실현을 위해 헌신하여 오셨습니다.

양 형제님이 지니시고 꿈꾸시고 계획하셨던 ‘참제자 마을’은, 바로 사도행전이 말씀하시는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 외의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집 저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사도행전 2,42-47)

양 토마스 형제님에게 ‘참제자 마을’은, 단순히 몇몇 신자들의 의기투합이나, 노년을 위한 심심파적, 또는 병고에서 벗어나 보려는 수단의 하나 등등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가 유가족 분들을 통하여 여러 번 확인한 바로는, 양 형제님은 ‘참제자 마을’을 위하여 올인하고, 당신의 혼불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 분의 아이디(ID), 아니 아호는 놀랍게도 ‘두메꽃’입니다. 이 시는 신비 시인, 영성가이신 고 최민순 신부님의 시입니다. 이 시 안에 양 형제님의 영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두메꽃>

외팔고 높은 산 골짜구니에 살고 싶어라. 한 송이 꽃으로 살고 싶어라
벌 나비 그림자 비치지 않는 첩첩 산중에, 값없는 꽃으로 살고 싶어라.
햇님만 내님만 보신다면야, 평생 이대로 숨어 숨어서 피고 싶어라

우리 모두는, 그리고 제 자신도, 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하시고, 기둥이신 분, 아직도 젊고 할 일이 많으신 분을 하느님께서 불러 가시는가? 하는 회의가 들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만사(萬事)를 선(善)으로 이끄시고 완성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섭리를 믿음과 희망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들의 슬픔과 시련을 건디어 냅시다!.

늘 충실하고 묵묵하게 신앙으로 병고의 고통을 버티고 살아가신 양 형제님처럼, 우리의 마음과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느님의 신비 앞에서, 이 신비를 받아들이며 살아갑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대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어느 철학자가 말하였습니다. (가브리엘 마르셀)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성인들의 통공을 믿습니다. “하느님은 죽은 자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루카 20,38) 라고 주님은 말씀 하십니다. 우리 형제가 그동안 겪은 모든 병고의 고통에서 벗어나 하느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도록, 이제는 보내드립니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요한복서 21,3-4)

주여,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양 명신(토마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내리소서.

(2010년 12월 10일 故 양명신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 영결 미사 강론)

<양 명신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 선종 나눔> -대림 제3주일 복음(마태오, 11,2-11)

‘죽은 이들이 되 살아나고’: 교우들의 선종은 하느님나라로 옮겨가시는 것이니, 죽을 때 부르심은 행복합니다.

‘무엇을 보러 왔느냐’: 토마스 형제님 관에 무릎 꿇고 친구하여 보내시는 사제님의 모습을 보니, 이는 바로 형제님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경배하시는 모습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와 같이 ‘오시는 분’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기도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그 분께 귀중하다(힘들다, 시편116)’: 장례미사 강론 때 아주 힘들어 하시는 사제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정말로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썩지 않으면’: 토마스 회장님은 자신을 열어 놓고 몸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셔서, 개인 성화에만 치 중하는 제 모습과 또 다른, 봉사의 중요함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보내드리는 장례 미사를 통해서, 그 분이 얻으신 자리를 보게 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피정을 하듯 은혜로움이 다가옴을 느꼈습니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이 귀절을 생각하면서 밤새워 기도 드렸습니다.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본대로 들은대로’ 말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참제자 모임’임을, 첫 모임 참가 때, 양 형제님의 첫 인도를 받으면서 느꼈습니다. 대림 피정에서는 ‘위로자’이심이, 이번 나눔에서는 ‘해방자’이심이, 말씀에서 다가옵니다.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양 형제님은 ‘다시 일어나리라는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양 형제님께 ‘죽음’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못해드렸다는 자책감도 들지만, 다시 생각하니, 이 분은 아마도 ‘세례자 요한’의 삶을 사신 때문이 아닐까 느껴집니다. (2010. 12. 11. 프라도의 집, 참제자 모임. 박 아우구스티노 정리)

우정의 의미와 중요성

진 교훈(토마스) 원장님

친구의 뜻;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

I. 키케로의 <우정론>에서

로마 공화정 때 정치인이자 뛰어난 문필가였던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치체로)가 기원 전 44년에 쓴 <우정론>에는 우정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있다. 물론 우정의 물음에 대해 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키케로도 우정에 관한 담론을 시작하면서, 호민관 술피키우스와 집정관 폼페이우스가 서로 가장 아끼던 친구였지만 어느 날 불구대천의 원수가 된 것을 보고 모두들 놀라고 안타까워했다는 일화를 먼저 예로 든다. 그만큼 진정한 우정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전 역사를 통해 우정의 범례로서 지속적으로 기억되는 친구들은 기껏해야 서너 쌍밖에 안 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키케로는 “**먼저 우정은 선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전제한다. 그가 여기서 ‘선한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의 경험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일상의 행동에서 “**성실과 정직 그리고 공정성과 아량을** 보여주는 사람들, 탐욕과 방종 그리고 파렴치한 행위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 굳건하게 소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을 주로 의미한다. 이런 **미덕**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우정은 싹튼다는 것이다. “**미덕이 우정을 낳고 지켜주니, 미덕 없이 우정은 어떤 경우에도 존속할 수 없다**”고 그는 말한다.

이해관계 때문에 맺어진 인간관계는 **우정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우정은 친구 사이에서 서로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그렇다고 우정은 이익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미덕을 갖춘 사람은 그만큼 다른 사람의 미덕을 볼 줄 알고 그것에 끌리는 법이다**. <우정론>에 화자로 등장하는 라일리우스와 그의 평생지기 스키피오의 우정도 서로 필요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서로의 미덕을 찬탄한 까닭에 서로 좋아했고 서로를 더 잘 알게 될수록 우정도 깊어갔다. 이익은 그에 따라온 부수적인 것일 뿐이다.

그러면 미덕과 선행을 전제로 할 때, 친구를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해주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키케로는 **우정의 제1법칙**으로서 “**도의에 어긋나는 것은 요구해서도 안 되고, 요구 받더라도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친구에게 **옳지 못한 것은 요구하지 말아야 하며, 친구에게는 옳은 것만 행해야 하고 이 때에는 굳이 친구가 간청하지 않더라도 먼저 나서서 해야 한다**. 그러므로 친구를 위해서 죄를 범했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 “**불한당들 사이의 의리와 협력은 우정이란 미명으로 비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키케로도 설명하듯이, 라틴어로 **우정(amicitia)**과 **사랑(amor)**은 모두 **사랑하다(amare)**라는 말에서 유래한다. 그것은 매우 **감성적인 것이다**. 우정이라는 말도 ‘정(情)’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키케로는 친구를 선택하고 우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판단**을 중요시한다. 다시 말해, **높은 수준의 이성적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친구 사이에서는 “**사랑하고 나서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고 나서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이 말은 사랑과 우정을 구분하는 핵심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정은 사랑의 윤리적 형태**’라는 정의를 끌어낼 수 있다. 다시 말해, **우정은 감성과 이성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윤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감성과 이성의 완벽한 조화, 그것은 인간관계의 이상형이다. 키케로는 **우정에서 인간관계의 최고 이상형을 본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우정을 이룬 사람들은 역사에서 몇 쌍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우정이야말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선하고 복된 삶을 위해서 **지향해야 할 인간의 과제**라는 것이다. 키케로는 우정을 논하면서, 사실 그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II. <우정과 관련된 고사성어>

간담상조(肝膽相照): 간 간/쓸개 담/서로 상/비출 조

의미: 간과 쓸개를 내보일 수 있는 가까운 사이라는 뜻으로, 허물없이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가까운 사이를 일컫는다. 출처: <고사경림(故事瓊林)>이라는 책에서 유래했다.

관포지교(管鮑之交): 대롱 관/절인 어물 포/어조사 지/사귄 교

의미: 관중과 포숙아의 사귄이라는 뜻으로, 이해와 믿음으로 사귀는 도타운 친구 사이를 이르는 말이다.

출처: 중국 춘추 시대 제나라의 관중과 포숙아의 우정이 돈독했다는 고사에서 나왔다

교우이신(交友以信): 사귄 교/벗 우/써 이/믿을 신

의미: 벗을 사귄 때는 모름지기 믿음으로써 해야 한다는 뜻이다.

출처: 신라 화랑도의 세속오계(世俗五戒) 가운데 하나이다. *마테오 리치의 교우론 참고

교칠지교(膠漆之交): 아교 교/옷 칠/어조사 지/사귄 교

의미: 아교로 붙이면 떨어지지 않고, 옷칠을 하면 칠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친구 사이의 떨어질 수 없는 두터운 우정을 일컫는다.

출처: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 백거이가 친구인 원미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래하였다.

금란지계(金蘭之契): 쇠 금/난초 란/어조사 지/맺을 계

의미: 친구 사이의 두터운 사귀를 뜻한다.

출처: <주역(周易)>에서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인지라 그 예리함은 쇠도 끊을 수 있고,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그 향취가 난초와 같다."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금란교, 금란지교, 금란지의, 금석지교(金石之交), 단금지계(斷金之契), 단금지교도 같은 뜻이다.

막역지우(莫逆之友): 말 막/거스를 역/어조사 지/벗 우

의미: 서로 거스름이 없는 친구라는 뜻으로, 허물없이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절친한 벗을 일컫는다.

출처: <장자(莊子)>에 나오는 일화에서 유래했다.

문경지교(刎頸之交): 목 벨 문/목 경/어조사 지/사귄 교

의미: '문경'은 목을 벤다는 말로, 목을 쳐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아주 가까운 사이를 이르는 말이다.

출처: 중국 조나라 때 인상여와 염파라는 사람이 서로 목숨까지 걸고 사귀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백아절현(伯牙絕絃): 말 백/어금니 아/끊을 절/줄 현

의미: 백아가 거문고 줄을 끊는다는 말로, 절친한 벗의 죽음을 슬퍼함을 이르는 말이다.

출처: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백아는 거문고를 잘 탔는데, 친구 **종자기**가 죽자 자신의 거문고 소리를 제대로 알아줄 사람이 세상에는 더 이상 없다고 하고 거문고 줄을 끊어 버렸다는 고사에서 나왔다.

붕우유신(朋友有信): 벗 붕/벗 우/있을 유/믿을 신

의미: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벗 사이에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를 일컫는다.

출처: 삼강오륜(三綱五倫) 가운데 하나이다.

수어지교(水魚之交): 물 수/고기 어/어조사 지/사귄 교

의미: 물과 물고기처럼 아주 친밀하여 떨어질 수 없는 사이를 일컫는다.

출처: 유비가 "내게 제갈공명이 있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얻은 것과 같다."고 한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지란지교(芝蘭之交): 지초 지/난초 란/어조사 지/사귄 교

의미 :지초(芝草)와 난초(蘭草)의 향기로운 사귀이라는 뜻으로, 벗 사이의 맑고 고귀한 사귀를 비유한 말이다.

출처: 지초와 난초는 모두 향기 있는 꽃으로, 사람 사이의 사귀도 모름지기 이처럼 맑고 두터워야 함을 강조한 성어이다.

관포지교(管鮑之交): 대롱 관/절인 어물 포/어조사 지/사귄 교

의미: 관중과 포숙아의 사귀이라는 뜻으로, 이해와 믿음으로 사귀는 도타운 친구 사이를 이르는 말이다.

출처: 중국 춘추 시대 제나라의 관중과 포숙아의 우정이 돈독했다는 고사에서 나왔다

III. 성서에서 찾아 본 우정(友情)

"부드러운 말씨는 친구들을 많이 하고, 우아한 말은 정중한 인사를 많이 받게 한다." [집회서 6.5]

"성실한 친구는 든든한 피난처로서, 그를 얻으면 보물을 얻은 셈이다." [집회서 6.14]

"성실한 친구는 생명을 살리는 명약이니,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그런 친구를 얻으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자신의 우정을 바르게 키워 나가니, 이웃도 그의 본을 따라 그대로 하리라." [집회서 6.16-17]

"날짐승에게 돌을 던지는 자는 그들을 도망치게 하고, 친구를 모욕하는 자는 우정을 깨뜨린다." [집회서 22.20]

"나는 친구를 보호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그 앞에서 나 자신을 숨기지도 않는다." [집회서 22,25]

"네 친구를 아끼고 그에게 신의를 지켜라." [집회서 27,17]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 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한 15.12]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요한 15,15]

IV. 맺는 말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저서는, 대체로 그가 쓴 『천주실의』라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많은 중국의 지성인에게 감동과 호감을 준 저서는 그의 『교우론』이었고, 이 책을 읽고 감동한 사람들이 『천주실의』를 읽게 되었고 천주교를 인정하게 되었었다고 한다.

서양에서 최초로 윤리학에 대한 저술을 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들에게 행복을 논하면서 행복은 덕(아레테; 자기 직분에 충실 하는 것)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지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 네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어라" [성현의 말씀]

<가장 큰 계명인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새 계명인 '서로 사랑'> -요한 13,31-35 부활5주일 복음묵상
'사랑'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가장 큰 계명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구약의 10계명을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요약하셨다고, 공관복음서들은 전하고 있다. 공관복음서와 바울로 사도의 서간들은, 이중에서도 '이웃 사랑'을 특별하게 강조한다. 그런데 오늘 요한 복음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여, 사랑의 계명에 속하지만, '서로 사랑'을 또 하나의 새 계명으로서 전하고 있다.

'서로 사랑'은 당시 '제자'들, 그리고 이후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계명이다. 제자들을 성부-예수님, 예수님-제자들 같이 서로 하나되게 하는 계명이므로, '서로 사랑'은, 성부-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음으로써, '제자'들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계명이다. (크리스찬 공동체에 주어진 이 영광의 계명이, 여타 다른 공동체로 향하게 되면, '형제애(兄弟愛)'로, '형제 공동체'를 세우는 일로 나타난다.-『진리 안의 사랑』)

'서로 사랑'의 반대는, 갈라지고 다르게 만드는 사랑, 구태여 이름을 붙여본다면 갈라지게 하는 '갈라 사랑' 달라지게 하는 '달리 사랑'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갈라 사랑-달리 사랑'으로 귀결되어 버리는 경우들을 늘상 겪고 있기도 하고, 많이 보고 있기도 하다.

오늘 복음의 주님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러한 '갈라 사랑-달리 사랑'을 넘어서려면,

사랑의 바탕이 '주님의 제자'로서인가 아닌가 하는 것과, 드러남이 '하느님의 영광'에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언제나 역지사지(易地思之)로써 되돌아 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다. (2010. 5. 2. 박 광용 아우구스티노)

*** 참 제자 마을 설립 목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 겸손과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룩하고자 함.

가톨릭 신앙의 깊은 영성을, 프라도회의 정신에 따라 살하고자 하는 모든 평신도님들에게 열려있는 공동체.

*** 참 제자 마을의 영성**

삼위일체 신비와 복음적 가난의 실천

- 자기 비움
- 친교의 정신
- 가난의 정신
- 봉사의 정신
- 공동체적 영성의 삶

*** 사업방향 및 목적**

- **피정의 집** ; 머무르고, 쉬고, 기도하고,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의 터.
- **쉼터** ;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친교와 나눔을 위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의 터
- **환경 생태 공원** ; 하느님께서 주신 자연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배움의 터
- **대안학교** ; 가난하고 어려운 청소년들의 전인교육, 특별히 인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의 터 모색.
- **이웃 사랑 실천의 터** ; 포항 성모 자애원(마리아의 집)과 결연 활동 등
- **프라도 사제 연수의 집** ; 프라도사제회 성직자들의 영성 충진을 위한 장소. 젊고 활기찬 한국교회가 소홀하기 쉬운, 기도와 관상의 터

*** 참 제자 마을 조성 봉헌 안내**

*** 순수 기부금;**

1002-641-017945 우리은행 양업문화 참제자마을
1002-841-030171 우리은행 프라도사제회 구요비
01168-641-001493 신용협동조합 양업문화교육원

*** 조건부 기부금;**

1002-641-017945 우리은행 양업문화 참제자마을
(년 6%금리적용 봉헌금 산정, 5년 거치 후 상환)
전화: 02-853-1104-5 팩스: 02-853-1105,
e-mail ; prado@catholic.or.kr

< 신립 및 입금 현황 > 2010. 12. 31. 현재

신립인원	신립금	납입인원	입금액
156	712,934,000	1,209	627,104,000

*** 매일 12시 정오**

참 제자 회원 모두가 삼종기도, 참 제자 마을 조성을 위한 기도와 환자를 위한 기도를 같은 시간에 다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2010년 동계피정(12/04-12/05)**

2010년 양업문화 교육원 참제자 동계 피정이 12월 04(토)-05(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정’이라는 주제로 과천 성모영보 수녀원 피정의 집에서 1박2일로 진행되었습니다. 40명이 참석하여 주님과 함께 하는 피정을 하였습니다. 동계피정의 마지막 행사로, 11-12월 영명 축일 축하식이 있었습니다.

*** 2011년도 새로운 임원 추대**

동계 대림피정 파견 미사 때, 아래 형제 자매님들께서 ‘참제자 모임’의 새로운 임원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참제자마을 추진위원장 : 이 상운 도미니코
재무 담당 : 김 문희 엘리사벳
홍보 담당 : 안 상용 루카, 정 숙경 루피나

*** 2010 성탄 미사**

12월 24일 오후 8시부터, 프라도의 집에서 성탄미사를 거행하였습니다. 나희균 선생님께서 봉헌해 주신 ‘성모님’과 ‘아기예수님’의 축성, 구유 예절, 성탄미사, 성탄 축하파티로 이어지면서, 40여명의 형제자매님들이 참석하여 주님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축하하였습니다.

*** 참제자마을 관리동 기본 설계 확정을 위한 논의 시작**
2011년 1월 8일에 모곡 참제자 마을 관리동의 기본 설계를 확정하기 위한 1차 모임이 15명 내외의 회원님들이 모이신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2월말까지 5차례의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 참제자 모임 회원님들 소식(경조사)**
-12월 8일 오후 5시, 양명신 토마스 형제님 선종
-1월 23일 오후 2시~ 양명신 토마스 형제님 추모제

*** 2011년 영명축일 미사 봉헌**
매월 영명 축일을 맞이하는 분에 대한 미사봉헌과 축하 파티가 진행됩니다. 매월 15일 전 후 성체조배, 나눔 후 17시에 미사가 봉헌됩니다

*** 양업 문화교육원 제 42회 문화강좌**
2010년 11월 7일(일) 12시30분 공덕동성당에서 심성수련연구회 김 원희 회장님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주제로 문화강좌가 열렸습니다. 문화강좌에 베리파스교사회, 참제자모임, 전통문화교실 모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으니,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2011년 1월 30일 12시 40분에는 공덕동성당에서 한철호 신부님의 ‘답답한 부모와 귀찮은 자녀의 몇가지 대화법’을 주제로 43회 문화강좌가 열립니다.

*** 사순절 성3일 전례 안내**
사순절 성3일인 4월21일(성목요일), 22일(주님수난 성금요일), 23일(부활전야) 오후 8시 프라도 집에서 진행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